

김옥선

Kim Oksun

베를린 초상

Berlin Portraits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TELIER
HERMÈS

김옥선의 작업은 비주류로서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차이와 차별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전개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확인하고 이해해왔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과 이국적 제주의 풍경, 국제 결혼 부부, 상호문화 가족, 난민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따라가는 김옥선의 작업은 대상을 반복하고 기록하고 수집하여 일거하면서 일련의 연작을 구성합니다. 이 장치를 통해 김옥선은 출근 '주변과 이방'이라는 주제를 강조해왔습니다. 풍경과 정물 등으로 확장되었던 사진의 대상이 다시 인물로 전환, 집중된 신작 베를린 초상 역시 '주변과 이방'이라는 맥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Kim Oksun's work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contemplation over differences and discrimination" surrounding (her) experiences as a woman in the periphery, through which she came to identify and understand herself and the world surrounding her. Her works constitute a series by repeating the objects, and recording, collecting and listing them as she objectively takes a close look at the lives of immigrants living in Jeju and the exotic scenery of Jeju, the coupl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fugees. Through this methodology, Kim Oksun has continued to highlight the theme of "outsiders on the periphery." Berlin Portraits, a new series of works, shares the context of "outsiders on the periphery" but the objects of photography that have been expanded to scenarios and still life again shift to figures.



사진, 어떤 삶에 대한 경의

다게레오타이프라는 이름의 사진술이 공표된 1839년 8월 19일은 사진이 공식적으로 첫 등장을 알린 날이다. 이후로, 사진은 1888년에 이스트맨 코닥이 최초로 롤필름을 장착한 카메라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필름 카메라의 시장은 1920년대에 소형 카메라의 등장으로 점차 확장된다. 이러한 아날로그 사진의 성장세는 1981년에 처음 등장하여 2000년대에 폭발적으로 시장을 장악해버린 디지털 카메라로 인해 가로막혔고, 디지털 카메라는 2010년에 호황의 정점을 찍은 후 곧바로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스마트폰 카메라에게 그 아성을 내어주게 된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약 25억 대로 추정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한다.¹ 2016년 6월 21일에는 이미지 공유 위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의 사용자가 5억 명을 넘어섰다고, 그리고 그중 3억 명은 매일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²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과 동영상은 매일 평균 9,500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사진술이 발명되고, 아날로그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사진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왔다. 사진의 기능도, 그것을 소비하는 방식도 변했다.

널리 보급되고 대중화되어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사진은 이제 넘쳐나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범람한다. 그저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쉽게 소비하고, 또 쉽게 삭제할 뿐이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진들이 쉽게 등장하고 쉽게 사라진다. 그리고 쉽게 잊혀진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더이상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나, 김옥선의 사진은 그런 흐름들을 거스른다. 실제 본인의 모습이 포함되기도 했던 해피 투게더 연작(2002-2005)과 남편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 함일의 배 연작(2007-2008), 낯선 이방인들의 모습을 담은 노 디렉션 홈 연작(2008-2010)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제주도의 곳곳에 버려지듯 자리잡고 있는 아자나무를 촬영한 빛나는 것들 연작(2011-2014)에서까지도.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눈앞의 대상을 촬영하는 김옥선에게 사진은 쉽게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³ 그에게 있어 사진은 단순히 눈앞의 피사체를 카메라로 잡아내고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기록이다. 그래서 김옥선 사진의 중심에는 늘 인물이 존재한다.⁴ 카메라를 앞에 두고 김옥선은 매번 낯선 인물과 마주하고, 오래도록 그 낯선 얼굴과 눈을 바라보고, 매번 용기를 내어 낯선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사진을, 김옥선이 마주했던 그 낯선 인물들의 얼굴을, 그 눈을 오래 들여다보게 된다.

“인간이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의 얼굴에 각인된다. 인간의 얼굴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한 권의 열린 책이다. 그러나 상형

1.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보급률 1위 국가?”, KBS NEWS, 2019.2.11, <https://mn.kbs.co.kr/news/view.do?ncd=4135732>, 2019.5.26.
2. “Instagram Today: 500 Million Windows to the World”, 2016.6.21, <https://instagram.tumblr.com/post/146255204757/160621-news>, 2019.5.26.
3.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를 통해 소비하는 최근의 행태를 떠올린다면, 대형 필름 카메라를 고수하는 김옥선의 촬영 방식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라고 칭할 수 있을 듯하다.
4. 제주의 활랑한 풍경을 배경 삼아 제멋대로 자란 아자나무를 촬영한 빛나는 것들 연작에 등장하는 나무들조차 종종 인물처럼 보인다.

Photography, Respect for a Certain Life

August 19, 1839—the date when the photographic technique of daguerreotype was officially announced—was the day of heralding the official debut of photography. Photography started to be disseminated in full swing with Eastman Kodak's launch of a camera equipped with a roll film for the first time in 1888, and the film camera market gradually expanded with the emergence of small cameras in the 1920s. Growth momentum of analogue photography was blocked by digital cameras which first appeared in 1981 and exponentially dominated the market in the 2000s, and the dominance of digital cameras reaching their peak in 2010 was replaced by that of smartphone cameras which began to be gaining a huge appeal from the latter half of 2011.

According to one recent survey, the world currently has approximately 2.5 billion smartphones, and in Korea, 95 percent of the population use smartphones.¹ It was officially announced that on June 21, 2016, Instagrammers—the users of Instagram known as a social network service specialized in image sharing—exceeded 500 million, among whom 300 million use Instagram on a daily basis.² There are over 95 million photos and videos posted every day on Instagram. While photography techniques develop, and analogue and digital cameras went through their ups and downs, photography has made a big stride into our daily lives. Functions of photography and the ways to consume it have changed.

Photography that has come closer to our daily lives by being wide spread and mass-appealing overflows amid a flood of images. It is taken, consumed and deleted easily by anybody. Thus, so many photos appear and disappear easily, and easily forgotten. That is why we do not look into photos anymore. And yet, photos by Kim Oksun defy such trends in the Happy Together series (2002-2005), the Hamel's Boat series (2007-2008) which started off from her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the No Direction Home series (2008-2010) capturing images of unfamiliar-looking foreigners and even The Shining Things series (2011-2014) for which she photographed palm trees that are everywhere in Jeju.

For Kim Oksun who shoots the objects in front of her in a conventional manner, photography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taken or deleted.³ For her, photography is a process and a record of going into the life of another person, instead of an act of capturing objects in front and consuming the images. That is why there exist people at the center of Kim Oksun's photography at all times.⁴ With a camera in front of her, she encounters strangers each time, gazes at their unfamiliar faces, and penetrates into their lives courageously each time. And she reveals and records their images as they are. That is why we also gaze at her photography, the faces of the strangers she encountered and their eyes.

“Every thought and act of human beings are ingrained on their face. The face of humans is an open book revealing all their secrets. But since they are written in pictographs, only a few have a key to decode the messages.”⁵

1. “95% of the people using smartphones...No.1 country in penetration rate?”, KBS NEWS, Feb. 11, 2019, <https://mn.kbs.co.kr/news/view.do?ncd=4135732>, May 26, 2019.
2. “Instagram Today: 500 Million Windows to the World”, June 21, 2016, <https://instagram.tumblr.com/post/146255204757/160621-news>, May 26, 2019.
3. A “conventional manner” might sound obscure, but given the recent pattern of photographing and posting on social media, Kim Oksun's shooting style of sticking to large-format film cameras can be dubbed “conventional” comparatively.
4. Even trees in The Shining Things series depicting wildly grown palm trees against a bleak landscape of Jeju look like people.
5. Eric Hoffer, Truth Imagined (Korean trans.), Ida Media, 2014, 37.



BNP_8712ES
2018, Digital c-print, 189 x 150 cm



BNP_8709CZ
2018, Digital c-print, 189 x 150 cm



베를린 초상 Berlin Portraits
Installation view

문자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사람은 극소수이다.”⁵

베를린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는 25점의 사진 연작 속에도 역시 낯선 인물들이 등장한다. 초기 작업⁶에서 인물로부터 출발하여 풍경과 정물로 확장되었던 김옥선의 관심은 이번 연작을 통해 다시 인물로 전환되는데, 이전의 작업들이 그랬듯이, 생김새도 차림새도 모두 서로 다른,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든 여성들이 제각기 자신들의 삶이 펼쳐진 공간에 앉아 있는 사진들은 이 낯선—그리고 한편으로는 평범해 보이는—인물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⁷ 그러나, 그 낯선 듯 평범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각기 다른 인물들에서 미묘하게 ‘이질적이고 불안정한’ 어떤 정서가 공통적으로 포착된다. 김옥선이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 사진 연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을 떠나 독일이라는 낯선 땅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낸 여성들이다. 한인 간호여성의 독일(당시 서독) 집단 이주는 당시 독일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이수길 박사의 중개로 1966년 1월에 시작되었고, 이후 해외개발 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병과 요양에 요구되는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독일, 해외 경험과 돈벌이를 희망했던 한국의 간호여성, 그리고 산업화와 그에 따른 외화 획득이 필요했던 한국 정부의 이해 관계 속에서 한인 간호여성의 집단 이주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정책이 변경된 1976년까지 이어졌다.

1966년 집단 이주가 시작된 이후 1976년 독일 이주가 중단될 때까지 대략 1만여 명의 한인 간호여성들이 단계적으로 이주했다고 추산되며, 이후 이들은 현지 잔류, 제3국 이주, 귀국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중 현지 잔류를 선택한 대부분은 독일의 경제 악화에 따른 강제 귀국 조치 등 독일 정부의 이주노동 대책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현지 여론과의 연대를 통해 낯선 땅에서 개척해낸 자신들의 삶을 지켜냈다.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종종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불려왔던 재독 한인 간호여성들, 이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해온 것은 그들의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었다.

“1966년 4월 28일 김포공항은 독일 라인마인 지역으로 취업차 출국하는 128명의 간호사들과 그들을 전송 나온 가족, 친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날 선배 언니와 나를 제외한 모든 간호사들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어서 힘든 노동의 대가로 외화 획득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친선 문화 사절단이 대거 출국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나의 마음은 그러한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그냥 빨리 탑승을 했으면 하는 초조한 기분 속에 젖어 있었다. 누군가가 나의 뒷덜미를 잡고 너는 못 가 하고 끌어낼 것 같은 불안한 심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⁸

50여 년 전 모든 것이 낯선 그곳으로 떠날 때에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개척할 때에도, 그 낯선 곳에 자신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결정할 때에도 모든 선택은 개인적이었고 주체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불안했는지 모르겠다. 내일이, 미래가 불안한 소수 집단에 속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들의 정서.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는 존재,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 지역적으로 소외된,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김옥선의 작업은 이렇게 재독 한인 간호여성들의 삶과 조우한다.

눈앞의 대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개념에 기반한 김옥선의 베를린 초상은 지난 50여 년간 독일에 정착하고 생활해온 재독 한인 간호여성들의 ‘이주 한인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질적이고 불안정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투쟁과 연대를 통해 지켜온 이들 여성의 모습은 김옥선의 이전 작업들에 등장하는 인물

5. 에릭 호퍼, *길 위의 철학자*, 이다미디어, 2014, 37.
6. 김옥선의 첫 작업은 나체의 여성들을 그들의 방에서 촬영한 *우먼 인 어 룸* 연작(1996-2001)이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등장해온 사진들과는 대조적인 접근을 보여준 작업으로, 발표 당시, 기존의 여성상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7.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된 개별 사진의 제목 역시 쓸모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8. 김순임, “어려운 출국”, *재독한국여성모임*, 2006. 7. 3, <https://www.koreanische-frauengruppe.de/55?category=465397>, 2019. 5. 26.

Even in the twenty-five pieces of photographic series exhibited in the title of *Berlin Portraits*, still strangers do appear. Kim Oksun's interest which started from people in her initial works⁶ to landscape and still life photos has shifted back to people through this series. As with her prior works, the women looking different in looks and style in their elderly years sit down in a space where their life unfolds in the photos, which give no information on these people that are unfamiliar—and yet looking ordinary.⁷ However, once one looks at their unfamiliar, yet ordinary faces, they commonly imbue some sentiment being “heterogeneous and unstable” amongst themselves in a subtle manner. This is the point which Kim Oksun pays attention to.

Figures in the photographic series of *Berlin Portraits* are women that pioneered to start a new life on a foreign land of Germany (then West Germany) after leaving Korea from the late 60s to the mid-70s. The collective migration of a group of Korean female nurses into Germany began in January 1966 through the arrangement by a Korean medical doctor named Lee Sugil in Germany back then, and continued through the KOICA's program. Such an exodus, going on until 1976 when the German government's policy for foreign labor transformed, followed the tripartite linked interests: Germany was short of nurses required for nursing and caregiving, Korean nurses hoped to gain experiences abroad and earn money there, and the Korean government needed to acquire foreign currencies as a result of the industrialization.

From the onset of the collective migration in 1966 until it was put to an end in 1976, about 10,000 Korean nurses are estimated to have moved to Germany as temporary contract workers, and they were destined to opt for either staying in Germany, migrating to another country or returning home. Most of those that decided to settle were strongly opposed to the German government's migration labor policies including forced return amid the economic hardships in Germany, and succeeded in having their voices heard as the pioneering settlers on the foreign land through solidarity with local people. Korean nurses residing in Germany who were dubbed as laborers in the modernization of their fatherland under the title of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even today—what sustained the lives of immigrant female laborers was their personal and subjective “choice.”

“Gimpo Airport on April 28, 1966 was overcrowded with families and relatives who were there to say farewell to 128 nurses departing Korea to work in the Rhine-Main area in Germany. All nurses except for my friend and me wore beautiful hanbok (Korean traditional costumes), making the atmosphere as if cultural envoys were to depart Korea en masse for friendly cooperation with another country instead of those that leave their country to earn foreign currency in return for their hard labor. I felt a bit unnerved, yearning to go on board, regardless of the then ambience. There was an anxiety in me as if someone would come and seize me by the back of my neck so that I cannot go.”⁸

When they left for a place where everything was unfamiliar fifty years ago, explored a life by adapting to a new environment and decided to bet their future to an unfamiliar place, all of the choices that had to be made were personal and subjective. That is why they were even more unstable. Sentiments of theirs whom voluntarily opted for belonging to a minority whose future was uncertain. Kim Oksun's works which revealed the lives of those cannot fit into a community, those that are legally and socially isolated, the regionally alienated and those that cannot be incorporated into the mainstream encounter the lives of Korean female nurses residing in Germany.

Berlin Portraits of Kim Oksun based on the concept of documentary photography which vividly reveals the objects before eyes or the worlds as they are records the identity of Korean female

6. Kim Oksun's first work is *Woman in a Room* series (1996-2001) where she photographed naked women in their rooms. The work was with a different approach from other photos where usually beautiful women have appeared. It was evaluated to resist the existing image of women.
7. Even the titles of each photo where alphabets and numbers are combined are useless too.
8. Kim Sunim, “Hard Departure”,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July 3, 2006, <https://www.koreanische-frauengruppe.de/category/archive/Kim>, May 26, 2019.



BNP_8711JS
2018, Digital c-print, 152.5 × 121 cm

BNP_8717NS
2018, Digital c-print, 152.5 × 121 cm



BNP_8711AR
2018, Digital c-print, 152.5 × 121 cm

BNP_8717YK
2018, Digital c-print, 152.5 × 121 cm

들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무표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립적이고 무표정한 얼굴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드러내고 들려준다. 연속적으로 나열된 사진들 속 찰나의 순간들은 각 인물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일상에 감춰진 개인의 존재, 개개인의 진실한 삶에 대한 진술을 드러낸다.

나란히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바라본다. 그 사진 속 얼굴들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생김새도 차림새도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든 평범한 여성들의 얼굴이 순간 낯설어 보인다. 그들의 차림새가, 화장법이, 그들 뒤로 보이는 가재도구가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의 틈을 벌려 놓는다. 무표정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인물들과는 달리, 그 벌어진 시간과 공간의 틈은 개개인의 삶과 존재의 치열했던 순간들을 오롯이 드러낸다.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마주했던 때 순간 김옥선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했던 모든 것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드러난다. 쉽게 찍을 수도 쉽게 지울 수도 없는 사진. 김옥선은 이렇게 개인의 존재, 진실한 삶을 객관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그 존재와 삶의 실재함에 경의를 보내는 듯하다.

— 김윤경

nurses in Germany as “Korean immigrant minorities” that settled and lived by in Germany for the past fifty years without any frills. The images of the women that have defended their social status—once being heterogeneous and unstable—through strife and solidarity are neutrally represented without much facial expression as it is the case with figures in prior works of Kim Oksun. Nevertheless, such neutral and indifferent faces reveal and tell so many things. The moments in the photos that are consecutively lined up uncove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each figure, and reveal statements on the existence of individuals being hidden everyday life and the genuine life of their own.

Again, I look at the photos on the wall. I look into the faces in the photographs. Faces of ordinary women looking nothing special in their elderly years look unfamiliar all of a sudden. Their clothes, make-up and the home utensils behind them widen the chasm of tempo-spatiality abruptly. The wide chasm explicitly reveals the individuals’ painstaking lives and those that have lived through them unlike those that say nothing being expressionless. Everything Kim Oksun endlessly questioned and identified each moment she encountered someone’s life by penetrating into it excludes itself between the chasm. The photos that cannot be easily taken or deleted. As such, Kim Oksun seems to express her deep respect to them and their life by objectively describing the existence of individuals and their genuine life.

— Kim Yunkyoung







BNP_8708CH
2018, Digital c-print, 152.5 x 121 cm

BNP_8630JR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10CJ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09YE
2018, Digital c-print, 126 x 100 cm

BNP_8708MS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13HS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21KS
2018, Digital c-print, 126 x 100 cm

BNP_8715EZ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07SN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13EK
2018, Digital c-print, 126 x 100 cm

BNP_8628KG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18JZ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09HZ
2018, Digital c-print, 126 x 100 cm

BNP_8708TY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16JS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630BK
2018, Digital c-print, 126 x 100 cm

BNP_8717GR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BNP_8715SS
2018, Digital c-print, 100 x 80 cm



베를린 초상 Berlin Portraits
Installation view



베를린 초상 Berlin Portraits
Installation view

에르메스 재단

에르메스 재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과 창의성을 연마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기관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공연예술의 "뉴 세팅"과 "시테의 아티스트" 프로그램, 현대미술의 전시와 작가들의 레지던시, 사진의 "이머전" 프로그램, 장인 발굴과 숙련을 위한 "매뉴팩처-스킬 팩토리"와 "스킬 아카데미" 등 기술, 창의력, 전달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러한 주요 목표를 반영하는 업무 기관들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 프로그램인 "H3", 미래의 세대를 위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고, 까뜨린느 츠키니스가 디렉터를, 2016년 2월부터는 피에르-알렉시 뒤마의 후임으로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재단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ww.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upports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seeking to learn, perfect, transmit and celebrate the creative skills that shape our lives today and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 operates nine major programmes with a combined focus on skills, creativity and transmission: *New Settings and Artists dans la Cité* for the performing arts, *Exhibitions and Artists' Residencies* for the visual arts, *Immersion, a French-American Photography Commission* for photography, *Manu-facto, the Skills Factory* and our *Skills Academy* for the discovery and perfection of artisan trades. *H - Heart, Head, Hand* is the Foundation's worldwide programme of support for organisations whose work reflects these central aims. Our *Biodiversity & Ecosystems* programme enacts a core commitment to protect fragile ecosystems for future generations. Created in 2008,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s directed by Catherine Tsekenis under the presidency of Olivier Fournier, who succeeded Pierre-Alexis Dumas in February 2016.

The Foundation's diver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a single, over-arching belief: *our gestures define us.*

FondationentrepriseHermès

fondationhermes

#FondationHermès #에르메스재단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전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 열려 있으며, 현대미술의 가치와 그 영속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여, 장르 구분 없이 독창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해 브뤼셀, 도쿄, 싱가포르에 소재한 갤러리들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3015.3248
f 02.545.1224

월요일 -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수요일: 휴관
목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2시 - 7시

maison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ès #아틀리에에르메스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Tokyo, and Singapore.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t 82.2.3015.3248
f 82.2.545.1224

Monday to Tuesday: 11 AM - 7 PM
Wednesday: Closed
Thursday to Saturday: 11 AM - 7 PM
Sunday & public holiday: 12 PM - 7 PM

Review publish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entitled *Berlin Portraits* by Kim Oksun held at Atelier Hermès from 31 May to 28 July 2019.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Catherine Tsekenis
Head of Communications: Sacha Gueugnier
Head of Projects: Clémence Fraysse
Communications Manager: Maxime Gasnier
Projects Manager: Julie Arnaud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Communication Coordinator: Hong Suh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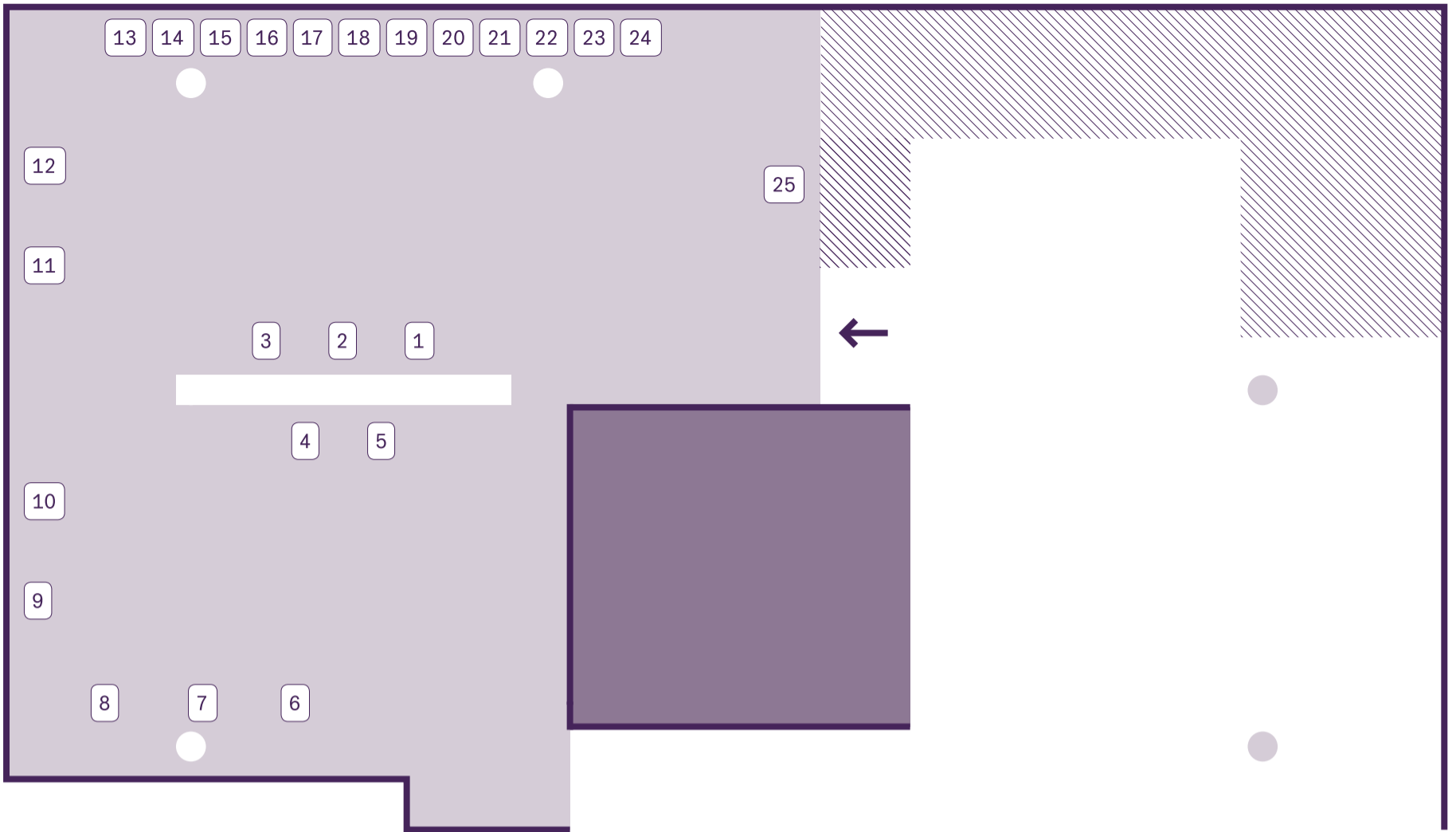
Exhibition Curator & Editor: Kim Yunkyong
Text: Kim Yunkyong
Translator: Choi Kiwon
Graphic Designer: Kang Gyeongtak, Jang Yoonjung (a-g-k.kr)
Exhibition Photographer: Nam Kiyong



About the Next:

한국계 프랑스 작가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경계의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적, 이론적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는 이미지와 기억의 기원에 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일련의 사진과 영상, 설치 작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Daphné Nan Le Sergent has continued her artistic and theoretical research around notions of schize and borders. She is planning to present an installation with a series of photographs and videos based on her long-term research on the origin of the image and the memory at Atelier Hermès.



1	BNP_8713EK	6	BNP_8717YK	11	BNP_8711JS	16	BNP_8713HS	21	BNP_8707SN
2	BNP_8721KS	7	BNP_8708CH	12	BNP_8711AR	17	BNP_8715EZ	22	BNP_8718JZ
3	BNP_8709YE	8	BNP_8717NS	13	BNP_8630JR	18	BNP_8628KG	23	BNP_8716JS
4	BNP_8709HZ	9	BNP_8712ES	14	BNP_8708MS	19	BNP_8708TY	24	BNP_8715SS
5	BNP_8630BK	10	BNP_8709CZ	15	BNP_8710CJ	20	BNP_8717GR	25	BNP_8717JL

ATELIER
HERMÈS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82-2-3015-3248

Copyright © 2019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contributor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베를린 초상
2019. 5. 31 – 7. 28

라운드 테이블 토크
“지금,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관하여”
김옥선(작가), 김익현(사진가 및 기획자),
박지수(보스토크 매거진 편집장), 이정민(기획자)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문의 및 예약: 02-3015-3248)

Berlin Portraits
May 31 – July 28, 2019

Round-table Talk
“Concerning the taking photographs now”
Kim Oksun (Photographer), Gim Ikhyun
(Photographer and Independent Curator),
Park Jisoo (Editor in Chief, VOSTOK Magazine),
Lee Jungmin (Independent Curator)

Saturday, June 22, 2:00 PM – 3:30 PM
(RSVP: 02-3015-3248)